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성 윤 희¹⁾

K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의 역할을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가 성별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218명(남자=158, 여자=60)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SPSS Process Macro Model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는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는 남성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성에게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에 있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부장주의, 성역할, 성차별, 성평등, 젠더

1) 주저자 및 교신저자 : K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E-mail: 0f30@kc.ac.kr)

I. 서론

교육기회의 증가로 여성 지위의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성불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의 네 개 영역에서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53국 중 101위를 나타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한국의 성 불평등은 국가 간 편차가 높은 편인 정치적 권한, 경제적 참여와 기회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분야의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의 2020년도 통계에서는 한국이 전체 189개 국가 중 10위를 차지해 오히려 성 불평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UNDP, 2020). 그러나 세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성 사망률이나 청소년 출산율,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 인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는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 청소년 성에 대한 강한 사회문화적 규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송영훈, 2017), 경제 참여율과 같은 영역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성불평등은 인간의 기본권, 평등권의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정재훈, 2018).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정영화, 2018),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와 정책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반발을 야기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차별주의와 관련하여 개인들의 인식 변화를 낳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주의적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 기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Glick와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이론에서는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한다(Glick & Fiske, 1996, 2001).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의 전통적인 시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은 무능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성적 유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적대적, 혐오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처럼 보이지만,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전통적인 성역할에 여성을 제한시키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나 상보적 역할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강화한다고 여겨진다(Glick, Fiske, 2001). 가령, 자애로운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을 준수하는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직업여성,

성공한 여성처럼 전통적 성역할을 깨뜨리는 여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가부장제는 정치, 법, 경제, 종교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조화된 지배를 지칭하는 것으로(Goldberg, 1993), 본질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사회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Walby, 1990). 특히 가족은 개인의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하수정, 박성연, 2011; O'Bryan, Fishbein, & Ritchey, 2004; Steinberg, 2001), 아버지의 불균형적 권력, 성역할의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로 특징지어지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차별주의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윤희, 정주리, 2019). 실제로 성윤희, 정주리(2019)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것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가부장적 환경의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주 초점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적 인식,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있고, 연구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사람들의 성차별주의적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성윤희, 정주리(2019) 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연

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주의를 단일 차원으로 평가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개념화하고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gender role stereotype)이란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이나 능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 단순화된 평가를 의미한다(김동일, 1999).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역할에 부합되는 행동이 보상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강화학습이 발생한다(Bussey & Bandura,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에 따라 남녀 간 역할을 구별하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자녀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성역할의 다세대 전수(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에 관한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양성평등/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정 내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경직되고 제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가정일수록 남자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을 좀더 선호하고, 여자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lcher,

Sutfin, & Patterson, 2008). 또한, 자라면서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자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pstein & Ward, 2011).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은 단순히 성역할 분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O'Neil, Nadeau(1999)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차별주의를 유지, 영속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남성은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에 적합하다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적인 것은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 사적인 영역은 사소한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가치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젠더 연구자들은 또한 여성은 선천적으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면,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 그리고 이러한 젠더 본질주의가 고정관념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성차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Ridgeway & England, 2007). Bobbitt-Zeher(2011)의 질적연구에서는 여성은 감정적이고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되는 직업 영역에 여성은 부적절하다와 같은 성 고정관념은 성차별적인 회사의 규정과 상호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낮은 승진 기회, 성별 소득격차, 고용 기회 박탈과 같은 직장 내 성차별과 연관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주의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실증연구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컸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남녀 아동 및 청소년에서 모두 감소하지만 그 감소의 폭이 여학생들에게서 급격하게 나타났다(좌현숙, 201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하위영역의 양성평등의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정영주, 2009).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생에게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가적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병해, 고재홍, 2006). 이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할 때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별에 의해 조절된다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주의, 젠더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의 하나

이다(양성희, 2019, 01.19; 최유숙, 2019). 최근 몇 년간 많은 대학에서는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남성으로서 특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많은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목소리라고 느끼며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2020). 성차별주의는 성폭력, 혐오표현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성차별주의적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의 영향력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년들의 성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마련에 있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주의에 대한 단일차원의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성윤희, 정주리, 2019), 이러한 관계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성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도가 높고,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더 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 즉 변인 간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

(Glick et al., 2000)에 비추어 볼 때,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평가할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더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련을 지지하는 문헌(Cunningham, 2001; Epstein & Ward, 2011; Fulcher et al., 2008)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Bobbitt-Zeher, 2011; Koch, D'Mello, & Sackett, 2015; Ridgeway & England., 2007)를 토대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적 인식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2.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 성별은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4. 성별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였고, 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되었다. 총 218명(남자 = 158, 여자 = 60)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남녀 성비는 연구대상이 속한 학교의 성비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첫 페이지에 연구 및 연구윤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설계 시 주어진 질문에 모두 응답을 해야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결측치는 없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4.75세($SD = 3.52$)이었고, 연령범위는 17세 ~ 40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부장적 가정환경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7문항은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우리집은 가부장적이다”라는 문항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문항 예시는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딸보다 더 중

요하게 여긴다,” “우리 집에서 좋은 것은 남자가 우선이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집안의 우두머리이다”이다.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 아들 또는 딸만 있을 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성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문항에 자신의 가정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혜리(2007)가 김동일(1999)의 성 고정관념 척도를 문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에서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묻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시는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생활이 곤란하지 않다면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고혜리(2007)의 연구에서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적대

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문항 예시는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를 찾는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문항 예시는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K-MSI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는 .95이었으며, 적대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 온정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부장적 가정환경

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지각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분석(연구문제 1)을 위해서는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연구문제 3)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변인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r = .28,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적대적 성차별주의($r =$

표 1. 주요 변인들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218$)

	1	2	3	4
1. 가부장적 가정환경	-			
2. 성역할 고정관념	.28**	-		
3. 적대적 성차별주의	.09	.58**	-	
4. 온정적 성차별주의	.09	.65**	.72**	-
합의 평균	16.42	12.78	22.23	24.82
합의 표준편차	7.70	5.20	8.80	9.81

주) ** $p <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N=218)

		<i>M</i>	<i>SD</i>	<i>t</i>
가부장적 가정환경	남성	2.03	0.87	-0.61
	여성	2.12	1.17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1.95	0.77	4.29***
	여성	1.49	0.53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	2.05	0.74	7.27***
	여성	1.33	0.37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	2.30	0.79	7.55***
	여성	1.46	0.51	

주) *** $p < .01$.

.58, $p < .01$), 온정적 성차별주의($r = .65$, $p <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721$, $p < .0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제외한, 성역할 고정관념($p < 0.001$), 적대적 성차별주의($p < 0.001$), 온정적 성차별주의($p < 0.001$)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예측변인에서 매개변인의 경로의 유의성, (b) 매개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경로의 유의성, (c) 예측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경로의 유의성.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자들은 Baron, Kenny(1986)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Hayes(2009)는 Baron,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논리의 명료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검정력이 낮고,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실제 수치값이 아닌 논리적 설명에 의존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 유의한 관련성이 선행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hrout, Bolger(2002)는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발생 시점이 서로 먼 경우나,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경우에는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 관계의 유의성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제안하고 있다. 표 3,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유의한 관련이 없으나, 가부장적 가정은 개인의 성장 환경을,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현재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인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추정치는 $\beta = 0.19$ 로 나타났고, 매개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09 ~ 0.32]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두 변인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설명량은 34.23%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추정치는 $\beta = 0.247$ 로 나타났고, 매개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12 ~ 0.3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두 변인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설명량은 43.22%였

표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i>B</i>	β	<i>t</i>	<i>R</i> ²	<i>F</i>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역할 고정관념	0.19	0.28	4.29***	0.08	18.37
가부장적 가정환경	→ 적대적성차별주의	0.10	0.09	0.35	0.01	1.18
가부장적 가정환경	→ 적대적성차별주의	-0.09	-0.08	-1.34	34.23	55.95
성역할 고정관념		0.02	0.60	10.45***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High
		0.19		0.07	0.09	0.32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4.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i>B</i>	β	<i>t</i>	<i>R</i> ²	<i>F</i>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역할 고정관념	0.19	.28	4.29***	0.08	18.37
가부장적 가정환경	→ 온정적성차별주의	0.12	0.09	1.36	0.01	1.84
가부장적 가정환경	→ 온정적성차별주의	-0.12	-0.10	-1.83	43.22	81.84
성역할 고정관념		1.28	0.68	12.67***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신뢰구간	
					Low	High
		0.25		0.07	0.12	0.39

주) *** $p < .001$. ** $p < .01$. * $p < .05$.

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5에 보여주는 것처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별의 곱셈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2,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beta = 0.46, p < .001$), 여성의 경우에는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유하여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하여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추론검정을 이용하였다(Hayes, 2013). PROCESS macro는 조절된 매개지수와 조절된 매개지수 추론검정의 결과물(부트스트랩 신뢰구간 포함)을 제공하고 있다.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추론한다. 5,000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

표 5.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β	SE	t
종속변인: 성역할 고정관념			
상수항	0.83	0.18	4.49
가부장적 가정환경	0.88	0.19	4.79***
성별	-0.64	0.14	-4.71***
가부장적 가정환경 × 성별	-0.42	0.12	-3.40**
종속변인: 적대적성차별주의			
상수항	0.00	0.06	0.00
가부장적 가정환경	-0.08	0.06	-1.34
성역할 고정관념	0.60	0.06	10.45***
종속변인: 온정적 성차별주의			
상수항	0.00	0.05	0.00
가부장적 가정환경	-0.10	0.05	-1.83
성역할 고정관념	0.68	0.05	12.67***

주)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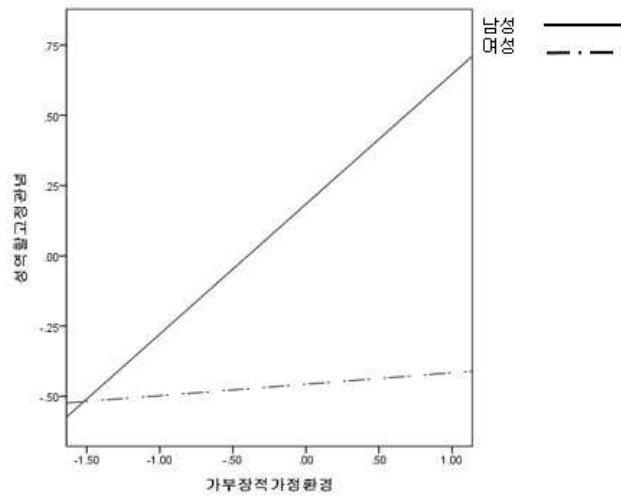


그림 1.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표 6. Bootstrapping 효과

조절변인	종속변인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성별	적대적 성차별주의	-0.25	0.08	-0.41	-0.11
	온정적 성차별주의	-0.29	0.08	-0.44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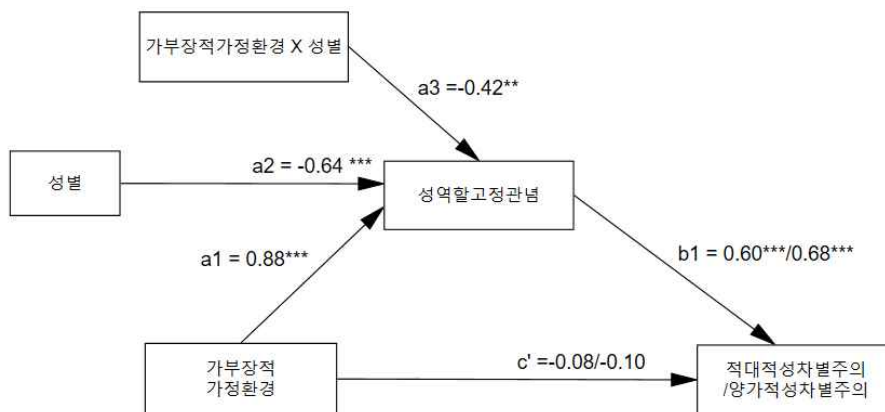


그림 2. 가부장적 가정환경, 성역할 고정관념,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주) c'와 b1 경로계수의 경우 적대적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에 대한 값을 /로 구별하여 표기함. 즉, / 앞은 적대적성차별주의, / 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경로계수임.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된 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함.

표 7.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조절변인: 성별	Effect	Boot <i>SE</i>	Boot LLCI	Boot ULCI
종속변인: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	0.28	0.07	0.15	0.42
여성	0.02	0.04	-0.05	0.11
종속변인: 온정적 성차별주의				
남성	0.31	0.07	0.19	0.44
여성	0.03	0.05	-0.06	0.13

평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적대적성차별주의와 온정적성차별주의에서 모두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반면($\beta = 0.28$, $SE = 0.07$),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반면($\beta = 0.31$, $SE = 0.06$),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모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윤희, 정주리(2019)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것, 성차별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개념화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성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반면($p < .01$),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p < .01$), 여성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

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차별주의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 중 남성에게만 유의하고, 그 효과 역시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추후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다른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볼 수 있겠다.

둘째,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간 직접적 관련이 없었으나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발생 시점이 멀거나, 시간적으로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두 변인 간 유의한 관계가 매개효과 검증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Shrout와 Bolger(2002)의 주장을 근거로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간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모두)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보고한 사람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았고, 이는 다시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일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Cunningham, 2001; Epstein & Ward, 2011; Fulcher et al., 2008), 직장 내 상사의 성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한 Bobbitt-Zeher(2011)의 경험연구 결과와 일관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적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에서 논의할 성별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이 가부장적인 정도가 높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가정환경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탐색이 필요하나 가설 수준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남성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채택한 반면, 여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성차별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 간의 차이를 경험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정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Ramos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암묵적 성 고정관념(implicit gender stereotypes)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남성

의 경우에는 성차별 노출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성의 경우 성차별에 노출된 경험의 성 고정관념이 아닌 정확성에 기반한 평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성역할 기대와 규범에 대한 요구가 딸에 비해 아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다(좌현숙, 2011; O'Neil, 2008). O'Neil(2008)은 성역할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훨씬 더 엄격한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남성은 과잉되고 경직된 방식으로 남성의 성역할을 내재화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가정에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요구가 아들과 딸에게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가부장적 가족 문화는 남아 선호의 유교적 가치와 맞물려 남성다움에 대한 압력이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매개로 양가적 성차별주의(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남성에게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앞서 논의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경우 가정환경이 가부장적인 정도가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다소 차이 있는 경로를 보이는데,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는데 이는 성역할 고

정관념의 매개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은 아니나,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로 인해 간접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들의 성차별주의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성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관계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결과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부모가 양성평등적 행동의 모델링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경우라도 학교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혐오표현,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주령, 박지선, 2019; 조무용, 김정인, 2016),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낮추기 위해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다차원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시점에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변인간 시간적, 인과적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연구나 종단

연구설계를 통해 변인간 인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대상 중 여성 집단의 사례 수가 낮은 효과 크기에 대한 검증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집단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난 여성의 유의하게 낮은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 수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 학문으로 여겨지는 이공계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연령대, 교육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남성 집단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높고, 여성 집단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전공, 직업군 등의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표본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령, 전통적으로 여성중심적이라고 간주되는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 양가적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해볼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중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이성형제가 없는 경우, 이성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차별을 경험한 경우와 가정된 상황에 대한 차별의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실제 차별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비록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것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이기는 하나 비표준화된 검사이다. 추후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 타당화 과정을 거친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의 기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혜리 (2007). 남녀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 지각 차이에 대한 분석: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 통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일 (1999). 성의 사회학-개정판. 서울: 문음사.
- 마경희 (2020).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 교육연구, 20(2), 547-567.
- 송영훈 (2017). 한국 '성평등' 118위? 10위? 어느 게 진짜?. 뉴스톱.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에서 2020년 10월 1일 인출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204.
- 양성희 (2019. 1. 19.). [양성희의 시사각각] 대학가는 젠더전쟁 중. 중앙선데이. <https://news.joins.com/article/23303466>에서 2020년 12월 22일 인출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정영주 (2009). 초등학교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양성평등의식 및 학교생활적응도 분석: 단성교육의 관점에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화 (2018).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종교사회적 운동의 동향. 종교문화학보, 15, 39-95
- 정재훈 (2018).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보건복지포럼, 261(7), 22-34.
- 조무용, 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 좌현숙 (2011).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궤적의 성차와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8(9), 237-263.
- 최유숙 (2019).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0(2), 33-53.
- 하수정, 박성연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1), 133-14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bbitt-Zeher, D. (2011).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Connecting gender stereotypes, institutional policies, and gender composition of workplace. *Gender & Society*, 25(6), 764-786.
- Bussey, K.,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4), 676-713.
- Cunningham, M. (2001).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Gender and Household Labor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1-122.
- Epstein, M., & Ward, L. M. (2011). Explor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bout Gender: Results from Adolescent and Emerging Adult Samples. *Sex Roles*, 65(1), 108-118.
- Fulcher, M., Sutfin, E. L., & Patterson, C. J.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Gender Development: Associations with Parental Sexual Orientation, Attitudes, and Division of Labor. *Sex Roles*, 58(5), 330-341.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nd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Adetoun, B., Osagie, J. E., Akande, A., Alao, A., Annetje, B., Willemssen, T. M., Chipeta, K., Dardenne, B., Dijksterhuis, A., Wigboldus, D., Eckes, T., Six-Materna, I., Expósito, F., . . . López, W. L.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Goldberg, S. (1993). *Why men rule: A theory of male dominance*. Chicago: Open Court.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ch, A. J., D'Mello, S. D., & Sackett, P. R. (2015). A meta-analysis of gender stereotypes and bias in experimental simulations of employme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1), 128-161.
- O'Bryan, M., Fishbein, H. D. & Neil Ritchey, P. (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rejudice, sex role stereotyping, and intolerance, *Adolescence*, 39(155), 407-426.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O'Neil, J. M., & Nadeau, R. A. (1999). Men's gender-role conflict, defense mechanism, and self-protective defensive strategies: Explaining men's violence against women from a gender-role socialization perspective. In M. Harway & J. M. O'Neil (Eds.), *What causes men's violence against women?* (pp. 89-116). Thousand Oaks, CA: Sage.
- Ramos, M. R., Barreto, M., Ellemers, N., Moya, M., Ferreira, L., & Calanchini, J. (2016). Exposure to sexism can decrease implicit gender stereotype bia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4), 455-466.
- Ridgeway, C. L., & England, P. (2007). Sociological approaches to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Sex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edited by Crosby, Faye J., Stockdale, Margaret S., Ropp, S. Ann. Maiden, MA: Blackwell Publishing.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 in retrospect and

-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20.
- UNDP. (2020). Human Development Reports 2020. New York.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 Walby, S. (1990). *Theorizing Patriarchy*. London, England: Routledge.
-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0.pdf
- 1 차원고접수 : 2020. 10. 10.
 수정원고접수 : 2020. 12. 1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2.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Gender Through Gender Role Stereotypes

Yoonhee Sung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C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gender role stereotypes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Also, gender was tested for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role stereotypes. Gender was further tested as a moderator of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Participants were 21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les=158, females=60) from a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and ambivalent sexism was found to be mediated by gender role stereotyp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stress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as moderated by gender, in which the link was significant only for males. Finally, a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was indirectly related to ambivalent sexism through gender role stereotypes only for male participants.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interventions to change individuals' sexist attitudes and perceptions.

Keywords: Patriarchy, gender roles, sexism, gender equality, gender